



제목	터키 알레비 종파에 나타난 싱크레티즘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문제연구 제9권 2호)
발행일	2010. 11. 30.
저자	우덕찬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53-77
ISBN 또는 ISSN	1598-3633

**내용 요약**

이 논문은 터키의 제2의 종파인 알레비 종파에 나타난 싱크레티즘을 다루고 있다. 알레비 종파는 투르크족이 다양한 종교의 영향 하에서 이슬람교를 수용하여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응시킨 혼합주의적 성격의 비정통 이슬람 종파라고 평가된다. 알레비 종파는 셀주크제국 시대에 발생한 ‘바바이 반란(Babailer Rebellion)’과 관련된다. 이 반란은 비정통 이슬람세력이 주축인 정치적 반란이었는데, 반란이 진압된 후 바바이들의 종교운동으로 발전되어 알레비 종파가 형성되었다. 저자는 바바이 성자들의 영웅담을 분석하여, 알레비 종파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자연숭배 모티프, 불교 모티프, 조로아스터교 모티프, 기독교 모티프를 고찰한다.

저자는 자연숭배 모티프를 산 숭배 모티프와 암석과 나무 숭배 모티프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바바이들의 영웅담에 나타나는 산 숭배 모티프와 암석과 나무 숭배 모티프는 투르크족의 자연숭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투르크족은 자신들의 근거지의 성산을 신성시했으며 중앙아시아지역 유목생활 시기의 역사기록에서 그 사실이 발견된다고 한다. 또한 암석과 나무숭배도 투르크족의 자연숭배의 하나인데, 위구르족이 신성시하던 바위와 관련된 설화와 투르크족이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유목 생활하던 시기의 나무숭배 흔적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저자는 바바이들의 영웅담에서 발견되는 윤회사상 모티프에서 불교 모티프를 발견한다. 또한 저자는 인류 최초의 계시종교 중 하나이며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조로아스터교가 바바이의 영웅담에서 불 숭배 모티프로 나타난다고 본다. 저자는 이슬람화하기 전의 투르크족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접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승천 모티프와 오병이어 모티프와 개안(開眼) 모티프가 바바이의 영웅담에 나타난다고 본다.